



특집 _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식 1천여 명 참가 “우리 모두 잘 해냈다” 서로 격려

화제 _ 이란서 선보인 한국 문화에 현지인 뜨거운 호응 태권도·김치·한복·드라마에 환호



고려시대 청자 사자 장식 향로 중국서도 격찬한 비색 청자



1

중국 송나라의 서궁(徐兢)은 1123년 사신으로 고려에 와서 개경에 1개월간 머무르다가, 귀국 후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40권을 지어 고려의 실정을 송나라에 소개했다. 그의 책에는 고려의 다양한 그릇도 소개돼 있는데 특히 '도로조(陶爐條)'의 내용이 흥미롭다. "산예출향(玃擬出香)도 비색이다. 위에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고 아래에는 봉오리가 벌어진 연꽃무늬가 떠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정교하고 빼어나다." 위의 내용은 고려시대 도자기공예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산예출향'은 사자가 장식된 향로를 말하는데, 당시 서궁은 향로 뚜껑 위에 사자가 장식된 것을 보고 이처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위 기록에 부합하는 가장 유사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 사



2

- 1. 청자 사자 장식 향로, 고려 12세기, 높이 26.3cm, 국보 60호
- 2. 2008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해저에서 발굴한 고려시대 침몰 선박에 실려 있던 청자 사자 장식 향로

자 장식 향로(국보 60호)이다. 이 향로는 뚜껑 위에 사자가 올라가 있고, 향을 피우는 몸체에는 세 개의 귀면 모양 다리가 붙어 있다. 따라서 몸체에서 향을 피우면 뚜껑에 장식된 사자의 입을 통해 향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사자의 두 귀는 아래로 처져 있고 코는 들려 있으며 살짝 벌린 입에는 가지런하게 이빨이 드러나 있다. 목덜미의 갈기는 탐스럽고 몸통은 매끈하다. 넓적하게 만든 꼬리는 등에 착 감겨 있어 안정감을 주고, 발 또한 맹수의 것으로 손색이 없도록 다부지게 표현했다. 특히 가슴에 방울을 달고 오른쪽 발로 보주를 잡고 있는 모습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사자 중 매우 드문 예에 속한다. **참**



표지 이야기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온 파독 간호사 1만여 명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일심사로 독일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파독 광부와 더불어 한독 친선의 가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한국 산업화 도정에 급여 송금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 02** **한국의 얼** 고려시대 청자 사자 장식 향로
 중국서도 격찬한 비색 청자
- 04** **특집**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식 1천여 명 참가
 “우리 모두 잘 해냈다” 서로 격려
 2세대들은 독일 사회 주역으로 자리 잡아
- 06** **동포소식** 재외동포 한인 2세대 ‘뿌리교육 학예 발표회’ 외
- 09** **동포 캘린더** 월드옥타 LA 지회, 미주 경제인 활성화 대회 외
- 10** **기획** 유학생 중심으로 발전한 벨기에 한인 사회
 지·상사원 중심의 안정된 생활
- 12** **화제** 이란서 선보인 한국 문화에 현지인 뜨거운 호응
 태권도·김치·한복·드라마에 환호
- 14** **글로벌코리아** 재미 차세대 한인 리더 모임 ‘넷캘’ 창설자 이재훈 씨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호텔 짓는 한상 나성문 씨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회회장
- 16** **지구촌통신원** 리우올림픽 D-100 기념 케이팝 플래시몹
 브라질 한류팬 한국 선수단 선전 기원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가 한국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행정처가 소송 서류 대신 송달
-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이란 첫 공식 방문
 교류·협력의 큰길 개척
- 19** **우리말 배워봅시다**
- 20** **동포문학** 봄의 기적
 김선정 _ 호주 _ 2015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 22** **OKF 뉴스** 재외동포 110년 사진전... 日대사 “발전적 한일관계로” 외
- 24** **고향의 맛·멋** 강원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전병
 막국수와 함께 전국을 사로잡은 건강식
- 26** **재단 공지**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식 1천여 명 참가

“우리 모두 잘 해냈다” 서로 격려

2세대들은 독일 사회 주역으로 자리 잡아



한국 간호사의 독일 파견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독일 현지에서 열렸다.

재독한인간호사협회(회장 윤행자)는 급여 대부분을 고국으로 송금하면서 한국 경제개발에 이바지하고 재독 한인사회 발전에 앞장서온 파독 간호사의 업적을 기리려고 5월 20~21일 독일 에센의 파독광부문화회관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양국 가교 · 경제 발전 기여

20일 파독광부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파독 간호사 50년의 역사’, ‘21세기의 글로벌 간호’를 주제로 기조강연, 주제 발표, 토론 등이 이어졌다.

다음날 독일 광산회관인 출페어라인에서 열린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식’에는 1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독일 전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모인 이들 간호사에, 미주와 호주에서 한인 간호사 97명이 가세하고 한국에서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

관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흘렸던 땀과 눈물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됐고, 독일 국민에게 큰 감동과 신뢰를 주면서 양국관계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고 축하했다.

정진엽 장관은 “50년 역사의 장(場)”이라고 기념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후손들에게 파독 간호사들의 역사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경수 주독 대사는 지난 50년 한독 양국은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을 이루는 같은 과정에 있었다며 “이제 한독은 서로 가장 필요한 동반자 관계가 됐고 그 근처엔 여러분의 노고가 있다”고 보탰다.

파독 간호사로서 기념식을 이끈 윤행자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은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 모두 백의의 천사가 됐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라며 울먹였다.



1. 독일 에센에서 5월 21일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식이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2. 독일 에센에서 열린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식에서 정진업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3.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온 파독 간호사 1만여 명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일습이로 독일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해 환영을 받고 있는 파독 간호사들.
4. 독일 에센에서 열린 '파독간호사 50주년 행사'에서 윤행자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장이 강연하고 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여러분은 선각자이자 애국자로서 자랑스럽고 존경한다”라고, 유제현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은 “파독 간호사 누나, 대한민국의 영원한 누나로 부르겠다”라고 각각 말해 큰 박수와 웃음을 끌어냈다.

파독 광부 모임인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최광섭 회장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형제자매처럼 지냈다. 앞으로도 아름답게 살아가자”고 깊은 유대감을 표했다.

집권 다수 기독교민주당 소속의 토마스 쿠펜 에센 시장은 “여러분은 정말 독일사회의 모범이었다”며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함께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상당수 한복을 차려입고 참석한 간호사들은 즉석에서 생일을 맞은 동료, 선후배에게 축기를 불러주고 지역 한인으로 구성된 한두레 마당 전통예술단, 전독일 파독 간호사 합창단, 아리랑 무용단이 잇따라 흥겨운 공연을 펼쳐 분위기를 달궜다. 정진업 장관은 간호사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도 했다.

‘블루 엔젤’로 불린 파독 산업전사

한국해외개발공사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로 파견한 간호사는 모두 1만 226명이다. 이들은 언어, 음식, 문화적 충격을 견디며 독일 각지 병원에서 친절과 성실로 환자를 대한 끝에 ‘블루 엔젤’, ‘주사 잘 놓는 간호사’란 찬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초기에는 차별과 무시를 견디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도 많았다.

윤 회장은 “이미 한국에서 간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음에도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병원이 허드렛일을 많이 시켰다”며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봐 피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고 쉬는 틈틈이 부지런히 독일어를 익혔더니 점차 인정을 받게 됐다”고 회고했다.

더 나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가족 부양에 힘을 보태려고 독일행을 택한 간호사들은 월급의 대부분을 꼬박꼬박 고향으로 송금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진화위)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1964년부터 1977년까지 파독 광부·간호사의 송금액은 1억 7천

만 달러다.

고창원 파독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회장은 “1963년 당시 한국의 수출액은 1억 달러, 파독 근로자의 외화 송금액은 연간 평균 1천만 달러였지만 100% 외화 가득률(稼得率)을 고려하면 수출액에 맞먹는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파독간호사의 계약 기간은 3년이었지만 대부분 연장 근무를 신청했다. 재독한인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연장 근무를 하며 독일에 남은 간호사들은 평균 25~40년 정도 근무하면서 모국으로 송금을 지속해왔기에 실제로 외화 송금액은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독일 이민통합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독일 정부는 간호사들이 기초를 다진 현지 한인사회를 ‘이민통합의 롤모델’이라 부른다. 한인 간호사들은 결혼 적령기가 되자 대부분 독일 남성과 결혼했고 일부는 파독광부와 가정을 꾸렸다.

여느 한국 부모처럼 자식 교육에 열정을 다한 덕분에 2세들은 의사, 법조인, 교수, 공무원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약하는 인재로 키워낸 것이다.

노미자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은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 한인 사회를 처음으로 구성했고 열심히 터전을 닦은 덕분에 나중에 이주한 이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며 “차세대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한글학교를 세웠고 국악 등 전통문화를 알리려고 풍물패, 무용단 활동을 지금까지 하는 사람이 많다”고 소개했다.

1970년대 후반 독일에서 근무한 권영민 전 독일대사는 “파독 간호사들은 자녀 교육에 무척 엄격했다”며 “덕분에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차세대 인재가 늘어났고, 앞으로 이들이 독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들의 노고에 힘입어 한국인은 독일에서 가장 성공한 다문화 이주민으로 꼽힌다. 재독한인간호사협회는 독일 정부의 요청으로 최근 독일로 건너온 난민을 돕는 조기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파독간호사를 강사로 보내고 있다. [▶](#)

재미동포 한인 2세대들 ‘뿌리교육 학예 발표회’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교육원에서는 5월 14일(현지시간) 재외동포 한인 2세 학생들의 ‘뿌리교육 학예 발표회’가 열렸다. 이번 학예 발표회는 한인 2세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뿌리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작품들을 소개하는 공연·전시회다.

이날 발표회에는 유치부와 초·중·고 학생 200여 명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여해 강당을 가득 메우면서 성황을 이뤘다. 학생들은 지난 14주 동안 사물놀이, 난타 모듬북, 국악 동요, 한국무용, 가야금, 바둑, 태권도 등 15개 수업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뽐냈다.

한복을 입고 우리 노랫가락에 맞춰 전통 춤사위를 선보인 ‘한



‘뿌리교육 학예 발표회’에서 학생들이 한국무용 ‘강강술래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다.

국무용’ 팀과 강렬한 한국 전통 타악기의 울림을 보여준 ‘난타 모듬북’ 팀의 공연에는 학부모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한국 전통음식과 특산물을 동화에 접목해 풀어낸 ‘음식 스토리텔링’과 한국을 대표하는 갓·붓·탈 등 공예품을 제작한 ‘전통공예’ 팀의 작품 전시는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교육원에서 10년간 한국어반을 지도해 ‘장기근속상’을 받은 임태혁 교사는 “쉬운 한글 단어도 모르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 한국의 수능시험과 비슷한 SAT에서 만점을 받아오는 게 큰 보람”이라고 했다. 지난 2005년 시작해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 뿌리교육은 8월 27일부터 ‘2016 하반기 수업’을 재개한다.

44세에 LA 경찰 꿈 이룬 한국계 크리스 리 경관

5월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여러 시를 합친 행정구역) 경찰국 아카데미. 이날 신임 경관으로 임관하는 한국계 크리스 리(44)를 포함한 경찰 아카데미 졸업생 79명이 가족과 경찰 관계자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절도 있는 동작으로 행사장에 입장했다.

리 신임 경관은 영어 외 다른 나라말을 하는 이중 언어 졸업생 37명 중 한 명이자 미국 바깥에서 출생한 7명의 임관 후보 중 한 명이다. 5개월 남짓 훈련을 마치고 우리 나이로 불혹을 훌쩍 넘긴 나이에 원하던 경찰 배지를 단 그는 “경찰이라는 좋은 계통의 직업에 들어오게 돼 즐겁다”고 너무나도 명확한 한국말로 입을 뗐다.

열 살이던 1982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리 경관은 34년



44세에 경찰의 꿈을 이룬 한국계 크리스 리가 5월 6일(현지시간) 경찰 아카데미 졸업식에서 이수증을 받고 신임 경관으로 임관했다.

이 지났지만 “함께 사는 부모님과 주변 친지분과 늘 우리말로 소통하기에 한국어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33세이던 2005년 미국 육군에 자원입대해 2014년 제대했다. 2009~2010년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하는 등 여러 나라를 돌며 보통 사람이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1천만 명 이상이 거주해 미국에서도 가장 인구 많은 카운티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텔라웨어 주와 로드아일랜드 주를 합친 것보

다 더 넓다. 리 경관은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군대도 다녀오고 미국에서도 큰 경찰서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경찰국에 들어오게 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계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 방한

한국계 입양인으로 올해 2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국가개혁담당 장관으로 취임한 장 뱅상 플라세(48)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이 5월 16일 방한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조찬을 함께 했고 서울 중구 중앙입양원을 방문해 해외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의 한국 이름은 권오복으로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만 7살이던 1975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변호사 가정에 입양됐다. 어려서부터 한국을 잊기 위해 프랑스어와 프랑스 역사, 지리 등 공부에 더 매달렸던 그는 자신을 받아들인 프랑스의 정치인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선의의 영향을 주고 싶었다. 프랑스 국회 보좌관을 거쳐 오랜 노력 끝에



장 뱅상 플라세(48)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이 5월 17일 서울 중구 중앙입양원을 방문해 해외 입양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11년 프랑스 녹색당 소속으로 상원에 입성했고 마침내 장관으로 취임했다.

상원의원이 되어서 당시 박홍신 주불 대사의 도움으로 한국 음식의 매력에 눈 뜬 그는 박 대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그토록 잊으려고 애썼던 한국을 다시 찾았고, 처음 방한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과 계속 친해지는 중이다. 플라세 장관은 “(이제)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적어도 1주일에 1~2번은 한국식당에 가서 먹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느끼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제가 살았던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경제 발전과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완벽하게 현대적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된다”면서 “다이나믹한 한국인들에 찬사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호주 6·25 참전용사 추모 공간에 ‘한국의 뜰’ 한글 표지석 설치

호주 남쪽 태즈메이니아의 6·25 참전용사 추모 공간에 수년에 걸친 현지 한인들의 노력으로 ‘한국의 뜰’이라는 글이 선명한 한글 표지석이 들어섰다. 호주 태즈메이니아 한인봉사연합회(회장 박찬원)는 5월 21일 호주군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전사한 전우들을 추모하기 위해 1999년에 조성한 작은 숲에 ‘한국의 뜰’ (Korean Grove)이라고 새긴 한글 표지석을 세웠다. 이 공간은 1951년 4월 24일에 벌어진 가평전투를 기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참전용사들이 서로 모여 안부를 나누며 전우들을 추모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가평전투에서는 호주군 32명이 전사했다.

그러나 그동안 이곳을 찾은 한인들은 영어로 ‘코리안 그로브’



호주 남쪽 태즈메이니아의 6·25 참전용사 추모 공간에 들어선 한반도 지도와 한글 독도 표기

(Korean Grove)라는 간단한 안내 간판 정도만 서 있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는데 아쉬움을 공유하게 됐다. 더구나 안내간판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데 대해 꼭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년 전 연합회를 결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회원들은 5년 이상 주변 청소도 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1월에 안내 간판의 표기가 동해로 바로 잡힌 데 이어 마침내 경기도 가평군에

서 공수된 한글 표지석의 제막식이 열렸다. 박찬원 회장은 “표지석 설치와 안내 간판의 내용 시정, 한국 패 설치를 위해 5년간 노력했다”며 “많은 분이 도움을 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 공화 한국계 인사들 “트럼프와 한국의 가교 역할 할 것”

미국 공화당의 한국계 핵심 인사들이 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의 가교 역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의 ‘동맹 무임승차론’ 등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대로 된 실상을 알리는 등 양측 간 소통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의 첫 한인 슈퍼바이저(공동시장 격)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본부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그 통로를 만들려고 여러 미팅도



미국 공화당의 한국계 핵심인사들이 5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은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의 첫 한인 슈퍼바이저위원회 부위원장, 오른쪽은 제이슨 정 RNC의 아태 담당 공보국장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RNC의 아태 담당 공보국장인 제이슨 정은 “오늘도 아시아계 선출직 인사 40여 명이 모이는 콘퍼런스가 열린다”면서 “미 전역의 아시아계 미국인, 특히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들이 대선, 연방 및 주 상·하원의원 선거에 어떻게 임할지 등에 대해 교육하고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스티ल 부위원장은 7월 공화당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도 참석한다.

정 국장은 아태 지역 언론에 트럼프의 입장과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동시에 역으로 언론의 요청 등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유럽 거주 한인, 이탈리아 로마서 화합의 한마당

유럽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탈리아 로마에 모여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남창규)는 5월 28일(현지시간) 로마 외곽의 라 보르제시이나 공원에서 ‘2016 유럽 한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국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15개국에서 500여 명의 한인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축구, 테니스 등에서 실력을 겨뤘다. 축구 경기에는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팀과 나머지 각국 선수들을 모아 구성한 연합팀 등 6개 팀이 참가했다.

남창규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유럽에 흩어져 있는 한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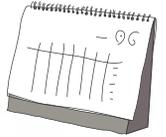


유럽한인총연합회가 5월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외곽의 라 보르제시이나 공원에서 ‘2016 유럽 한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모처럼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의를 더 돈독히 다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올 가을에는 한글 웅변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아울러 유럽 한인의 수가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한인 공동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한 만큼 각국에 한국 문화를 확산하는 작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유럽 한인들의 건의 사항을 모아 본국에 전달하는 일도 병행하기로 했다. **창**



월드옥타 LA 지회, 미주 경제인 활성화 대회

세계 한인무역협회(World-OKTA·월드옥타) 로스앤젤레스(LA) 지회(지회장 민병호)는 7월 6~8일 LA호텔다운타운에서 세계 각국의 동포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미주 경제인 대회'를 연다. 대회 기간 참가자들은 '환태평양 무역 환경 변화 및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쿠버를 포함한 중남미의 신시장 개척 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한국 각 지자체의 중소기업을 초청해 산업 기술·신상품 전시회를 열고 일대일로 수출 상담도 진행한다.



재일동포 청년 300명 정체성 확립 위해 모국 연수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산하 조직인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회장 박유식)는 9월 22일부터 3박 4일간 회원 300명이 한국을 방문하는 '재일동포 청년 모국 방문' 행사를 연다. 이들은 행사 기간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파크텔에 머물며 재일동포 역사와 우리말 배우기, 한국 문화 체험, 서울 시내 탐방, 판문점 견학 등에 나선다. '재일동포의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도 연다. 한국의 청년 단체와 교류도 추진한다.



한인 2세 호주 변호사, '30세 미만 우수 변호사' 후보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인 2세 변미연(29·호주 이름 레베카 변) 변호사는 최근 호주 법률 전문지인 '로이어즈 위클리'(www.lawyersweekly.com.au)가 선정한 '30세 미만 호주 우수변호사 30인'(30 Under 30 Awards) 후보에 올랐다. 이 매체는 그를 '노사관계·고용 및 안전' 부문에서 '베스트 10'으로 뽑았다. '30세 미만 우수변호사 30인' 시상식은 6월 24일 시드니 상업 중심 지구에 있는 아이비 볼룸에서 열린다.



정상기 미 킹카운티 법원 판사, 일찌감치 재선 확정

정상기(미국명 새뮤얼 정·54) 미국 워싱턴 주 킹카운티 법원 판사가 오는 11월 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지난 2014년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 주지사로부터 대법관으로 임명된 매리 유 전임 판사의 후임으로 임명된 그는 유 전 판사의 잔여 임기를 마치고, 올가을 치러질 선거에 일찌감치 출마했다. 1992년부터 한인 생활 상담소를 설립해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 정 판사의 임기는 2020년까지다.



말레이시아 한인사회 숙원 한국학교 9월 개교

말레이시아 한국학교가 9월 개교한다. 한국학교 설립은 동포 사회에서 모금한 20억 원의 기부금과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셀랑고르 주 사이버자야에 3층 건물로 지어지는 한국학교는 올해 유치원 14명과 초등학교 70명 등 84명, 2020년에는 유치원 40명과 초등학교 180명 등 22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명예회장이기도 한 권병하 테크노맥스 인터내셔널 대표가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한미문화예술재단 젊은 감각의 한국 문화 축제 연다

미국에서 한국 문화 보급에 앞장서온 한미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태미)은 6월 18일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조지메이슨대 콘서트홀에서 '아리랑 코리아'를 주제로 '제11회 아시아&퍼시픽 아일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태미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축제를 열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이번에는 미국의 젊은이들도 즐길 수 있도록 재즈와 비보이 등 젊은 감각의 한국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학생 중심으로 발전한 벨기에 한인 사회 지·상사원 중심의 안정된 생활



- 1. 2011년 7월 1일(현지시간) 벨기에 왕립 악기박물관(MIM)에서 열린 한·벨 수교 100주년 기념 한국 전통 악기 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우리 악기를 살펴보고 있다.
- 2. 2008년 10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된 한국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관람객이 국악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벨기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첫 번째로 한국을 승인한 국가 중의 하나며 양국은 1961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벨기에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보병 1개 대대, 연인원 3천 500명의 병사를 보낸 참전국이다. 벨기에 참전 용사 106명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

벨기어로 한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이다. 경상남도 하동 천주교 진교성당의 기록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파리로 유학을 떠나 가톨릭 사제가 된 이영식(히지노) 신부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아 벨기에, 프랑스, 로마 당국에 한인 신학생과 평신도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급기야 1953년 10월 루뱅대학을 중심으로 현지 교회와 관계 기관의 인사들로 구성된 '한국 유학생 후원회'라는 뜻깊은 결실을 보게 됐다. 당시 후원회의 원조를 받아 벨기어로 유학한 10여 명의 한인인은 종교, 철학, 의학 등을 공부했다.

초기 한인 사회는 유학생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후 독일의 광

산 근로자와 간호사 등이 입국했고, 지·상사에 근무하다 퇴직 한 뒤 정주하게 된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 벨기에는 대사관과 별도로 주유럽공동체(EC) 대표부가 1998년까지 따로 있었다. 초기에는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이 많아 한인 사회의 화합에 기여했다. 독일이나 프랑스에도 지·상사 출신의 잔류 이민자가 있지만 벨기에와 같이 한인사회가 소규모인 경우 이들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고 할 수 있다.

벨기에 동포들은 무역업, 양품점·백화점·여행사·식당·관광 안내 등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운동을 시작할 때 도장에 태극기부터 걸어놓고, 태권도보다 조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온 태권도 사범들도 한인 사회 발전에 큰 몫을 했다. 현지인 태권도 애호가 많은 벨기에는 2015년에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이 주최한 제1회 대사배 태권도 한마당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17일에 2016-2017년 신입 벨기에한인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된 진운섭 회장은 태권도 진도장 관장으로서 1988년 벨기어로 이주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벨기에 태권도 국가대

표 감독을 역임했다.

벨기에한인회는 유학생 모임을 모태로 발전해 1968년에 정식 창립했다. 1965년 주벨기에 상주대사관이 개설된 직후여서 당시 한인회 산하의 운영위원회에는 동포 기업인을 대표한 실업인연합회 회장 외에 영사 1명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인 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유학생 대표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한인회는 동포, 상사원, 유학생을 아우르는 동포 화합의 중심이었다.

국내 기업의 지·상사는 수십 곳에 이른다. 2015년 12월 5일 열린 벨기에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의 후원 기관과 업체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20곳이 넘는 정도이다. 송년 행사 1부에서는 성악, 플루트 연주, 피아노 독주, 30명의 어린이가 부른 흥겨운 캐럴 등이 참석 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저녁 만찬 후의 2부 경품 추첨에서는 서울 왕복 항공권, 삼성 TV 등 후원사들의 푸짐한 경품이 참가자에게 돌아갔다.

외교부가 발표한 2015년 현재 벨기에의 재외동포 총수는 1천50명이다. 이 중 영주권자는 199명, 외국국적 동포는 84명, 유학생은 106명이다.

벨기에한인회는 재벨한인회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한글로 발행되는 정보지인 한인회보는 고국소식은 물론 동포사회 소식, 각종 정보 등을 총망라해서 전달한다. 회보는 한국 식당, 한국 상점, 한인 교회와 성당 등에서 볼 수 있고 회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한인회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다. 한인회 주최 정기 행사는 봄과 가을에 열리는 체육대회 겸 사생 대회, 12월 초에 열리는 문화 행사가 있다. 2016년 5월 7일 열린 체육대회에는 동포와 자녀들이 함께 참가해 운동 경기, 사생 대회, 바비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2013년 설립한 한국문화원은 한국 문화 전시회, 요리 강좌, 한국 영화의 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해 벨기에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벨기에 한글학교에는 100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한글학교는 유치부 3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학교 2학급, 고등학교 1학급을 두고 있다. 이외에 2015년도 1학기부터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역사 등을 배우는 '한국 사랑방'이 신설돼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다채로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학급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호응이 크다.

벨기에에는 동포 수의 몇 배인 6천여 명의 한인 입양인이 살고 있다. 이들은 재벨기에입양인협회(KOBEL)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한인회와 친선 모임, 친부모 찾기 행사 등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들은 입양인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을 초청하는 설 잔치를 여는 등 한인 사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장**



3



4

3. 2011년 10월 26일(현지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 한국공원에서 한국전쟁 당시 산하한 벨기에군 장병들을 추모하고 생존자를 격려하는 행사가 열렸다.
4.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벨기에군의 모습
5. 2014년 9월에 열린 벨기에 한인회 체육대회 및 어린이 사생대회
6. 2015년 6월 27일에 열린 한글학교 학기말 행사
7. 2015년 6월 27일에 열린 벨기에 한글학교 학기말 행사



5



6



7

이란서 선보인 한국 문화에 현지인 뜨거운 호응 태권도 · 김치 · 한복 · 드라마에 환호



5월 2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의 밀라드타워와 문화재청, 테헤란대학 등지에서 한국 문화예술 전반을 보여주는 '한국 문화 주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태권도, 한식, 한복, 드라마, 시문학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예술이 소개돼 현지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밀라드타워에서 태권도 시범이 진행되는 동안 1천600여 좌석을 가득 메운 관객은 연신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 길란대학교 건축학과에 다니는 마나 사불 씨는 "이번 공연에서 특히 태권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며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와 박진감 넘치는 격파 기술에 넋을 잃고 바라봤다"고 말했다.

밀라드타워 전시실에서 개최된 '한국 식문화의 가치와 K-할랄푸드, 문화의 체험' 이란 주제의 전시회에서는 김치에 이목이 집중됐다. 할랄 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해 만든 '백김치', '석류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등 10여 종의 김치를 맛보려는 관람객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배추김치를 맛본 싸마네 엠파리 씨는 "이전에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김치를 맛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금 맵긴 하지만, 싱겁거나 짜지도 않고 정말 맛있다. 한국음식을 직접 먹어볼 수 있



는 행사가 열려서 좋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동 및 이슬람 16개국에 수출된 김치는 391만 달러어치로 전체 김치 수출의 5.3%를 차지했다. 이슬람권에 대한 김치 수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한복도 선보였다. 이란과학기술대학원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샤브남 야즈다니 씨는 “한복을 처음 입어보는데 정말 예쁘다”며 “한국과 이란 문화에는 비슷한 점이 많아 이란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 대학교에서 힌디어를 전공하는 호세인 에브라히미 씨는 “처음 입어본 한복인데 색깔이 정말 예쁘고 입어본 느낌도 좋다”고 즐거워했다.

또 밀라드타워 시네마홀에서 열린 ‘한류 드라마 상영회’에는 한국 드라마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란의 최대 한류 팬클럽인 ‘프라클러스’ 회원을 포함해 걸 그룹 ‘소녀시대’와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엑소’, ‘슈퍼주니어’ 등의 팬이 몰려와 한류의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프라클러스’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4만 명으로, 최신 앨범 소개 등 케이팝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생생히 전하고 있다.

상영회에서는 KBS ‘장영실’, MBC ‘옥중화’, SBS ‘육룡이 나르샤’ 등 TV 드라마가 상영됐는데, 이를 시청한 관람객들은 하루 빨리 이란 안방에서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행사 직후 이란 국영방송사인 IRIB는 이들 드라마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했다.

이란 문화재청에서 열린 두 나라 문학인들의 ‘한·이란 시의 만남’ 행사에서도 100여 명의 청중이 한국 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 문체부는 “이번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문화와 콘텐츠의 이란 진출을 돕기 위해 내년엔 한국문화원을 개원하고, ‘한·이란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추진해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5월 1일(현지시간) 테헤란의 한 호텔에서 열린 ‘K-푸드 쿠킹 클래스’ 역시 소셜네트워크(SNS)만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는데도 100명 정원에 350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대부분이 여성이었지만 이란 남성도 몇 명 눈에 띄었다.

메뉴인 김치와 김밥 중 김치 담그기가 시작됐다. 강사로 나선 한국인 요리사가 큰 대접에 담긴 고춧가루를 채 썰어 놓은 야채에 모두 붓자 행사장이 술렁거렸다. 다른 중동 지역과 달리 이란에 김치 수출은 아직 되지 않지만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는 것은 이란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손에 고춧가루를 든 마리암(34) 씨는 “정말 이 고춧가루를 다 넣어도 먹을 수 있느냐”면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 야채와 버무렸다. 마리암 씨는 “TV 드라마 ‘대장금’에 나오는 한국 요리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인터넷으로 김치 만드는 방법을 봤는데 한국인에게 직접 배우고 싶어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치가 완성되자 김밥 재료가 등장했다. 주부 파르나즈(39) 씨는 “일본 음식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한국 김은 더 얇고 부드러운 느낌”이라며 “향이나 맛이 독특하다”고 말했다. 김밥 만들기는 처음 만들어 보는 초보자에게 고난도의 도전 과제처럼 보였다. 참기름과 소금과 섞은 밥을 얇은 김에 깔기부터가 쉽지 않았다. 김이 찢어지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서툴지만 자신이 만든 김밥과 김치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움을 만끽했다. 대학생 파니즈(22) 씨는 “김치가 맵긴 하지만 상당히 맛있고 건강에 좋을 것 같다”며 “TV나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 음식을 처음으로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장**



3



4



5

1. 이란 테헤란 밀라드타워에서 5월 2일(현지시간)부터 4일까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체험형 전시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2. 이란 젊은이들이 5월 2일(현지시간) 테헤란 밀라드타워에서 열린 ‘한·이란 문화 공감’ 공연 시작에 앞서 취재진에게 손을 들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
3. 이란 젊은이들이 한국 전통 차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4. 이란 젊은이들이 5월 2일(현지시간) ‘한·이란 문화 공감’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5. 5월 1일(현지시간) 테헤란 에스피나스 호텔에서 열린 요리 강좌에 현지인 100명이 참가해 김치와 김밥을 직접 만들었다.

GLOBAL KOREAN

재미 차세대 한인 리더 모임 '넷캘' 창설자 **이제훈** 씨

10돌 맞아 모국과 네트워크 구축 추진



교포 1.5세와 2세로 구성된 재미 한국인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인 넷캘(NetKal: Network of Korean American Leaders)이 결성된 지 올해 10년이 됐다. '미국 사회는 물론 미국 내 한인 공동체를 이끌어갈 동량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넷캘을 창설한 이제훈(57) 남가주대(USC) 아·태리더십센터 소장은 "넷캘의 시작은 차세대 한인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소수계인 한인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넷캘에 소속된 펠로우(회원)는 하버드·프린스턴·컬럼비아대 등 아이비 리그와 스탠포드·UC버클리·USC 등 서부 명문대 출신이다. 이들은 정계나 글로벌 기업, 금융계, 사회단체 등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30~40대 젊은 인재이다. 2006년 2월 넷캘 1기가 결성된 이래 지난해 넷캘 9기까지 모두 226명이 배출됐다. 한인 최초의 LA 시의원에 당선된 데이비드 류

(40)는 넷캘 2기이며, 론 김(37) 뉴욕 주 하원의원은 넷캘 4기다.

넷캘은 지난 2006년 2월 시작됐다. 당시 USC는 SK그룹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한인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이것이 넷캘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넷캘 펠로우십은 매년 전도유망한 한인 젊은이들을 선발해 6개월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 각 분야에서 잘 나가는 젊은이들한테 엮어주고 성공한 한인 지도자를 멘토로 초청해 그들의 인생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기도 한다. 넷캘은 차세대 한인 지도자들 간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모국인 한국과의 협력 증진도 모색하고 있다.

이 소장은 올해 1월 26일 차세대 한인 지도자 양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주한인총연합회(Federation of Korean American)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호텔 짓는 한상 **나성문** 씨

2010년 진출해 타타프리미어그룹 경영

나성문(41) 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타타프리미어그룹(TATA Premier Group)의 대표를 맡고 있다. 중국계 아내인 칭타 스탠리가 회장이다. 그룹 산하에는 4개의 자회사가 있다. 유류·유훈유, 타이어·배터리, KCC 페인트, 중장비 부품 등을 판매하는 'TATA Niagamas', 광물을 중개하고 광산 기자재 및 소모품을 취급하는

'TATA Global Energi', 건설업체 'TATA Multi Cipta Karya', 호텔을 운영하는 'TATA Global Indonesia' 등이다.

나 대표는 타타그룹의 실제 경영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사업을 챙기면서도 최근 국내 기업인 에이스골프(Ace Golf)의 해외 총괄 판매를 맡아 인도네시아, 광주, 미국, 중국, 유럽 등지를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다닌다.

“제 고향 광주시의 기업체가 개발한 골프공 ‘엑스페론’(Xperon)에 매료돼 해외 판매를 맡게 됐어요. 이 골프공은 중력 때문에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리를 밝혀낸 뒤 균형을 잡아주는 ‘듀얼 밸런스’ 제조 공법을 창안, 수많은 국내외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나 대표는 ‘엑스페론’의 해외 판매 외에 칼리만탄티무르 주 발릭파판시에 호텔을 짓는 일에도 열성을 쏟고 있다. 비즈니스맨들이 설 새 없이 드나드는 보르네오 섬 최대 석유 기지의 하

나인 이곳에 짓는 호텔은 112개 객실을 갖춘 7층짜리 3성급 비즈니스호텔로 2017년 문을 열 예정이다.

나 대표는 광주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1994년 광주예술전문대 사진학과에 입학했다가 그해 의무경찰에 자원입대했고, 제대 후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사회에 진출했다. 잡화상, 요식업, 서비스업, 외판업 등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건설회사 기획실장, 해운회사 사무장 등으로 일하다가 2010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기업가로 성공했다.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

“후배 양성과 한인사회 봉사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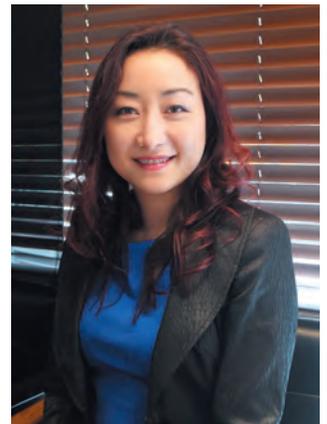
재영한인의사협회는 영국 내 한인 의사들의 정보 교류와 권익 증진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단체다. 회원은 50여 명으로 한인 의사 대부분이 가입해 있다. 현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한인이 100여 명이라서 회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 초 회장에 당선된 박현미 재영한인의사협회장은 협회의 주요 활동으로 후배 양성과 한인사회에 대한 봉사를 꼽았다.

“의대에 다니는 후배들에게 전공 선택과 경력 관리 등에 조언을 해주는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고등학생을 위해서 ‘진학 상담회’와 ‘재영 한인 건강의 날’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가장 바라는 자식의 직업’으로 의사를 꼽는다는 말에 박 회장은 “영국에서 의사들은 돈을 잘 버는 연봉 랭킹 순위에 못 든다”며 “공무원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연봉을 생각한다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영국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치의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새로운 주치의에게 이전의 건강 이력이 빠곡히 적힌 진료 노트가 건네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죠. 무상 의료라서 환자는 의사를 믿고 의사는 영리 목적 없이 순수하게 의술 활동을 펼친다는 게 의료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박 회장은 “영국의 무상 의료 제도는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2세 때 가족과 함께 이민한 그는 영국 버밍엄 의대를 졸업했고 노팅엄 대학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1997년 내가 의대에 입학할 당시와 달리 지금은 어느 의대를 가도 한인 학생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한인 의사가 늘고 있다”며 “선후배 간의 유대감이 무척 높은 모국에서처럼 회원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돈독한 사이가 되도록 협회를 이끌 작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



리우올림픽 D-100 기념 케이팝 플래시몹 브라질 한류팬 한국 선수단 선전 기원

김재순 | 연합뉴스 상파울루 통신원

한류 확산의 선두 주자인 케이팝(K-Pop)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탤다. 리우 올림픽 개막을 꼭 100일 앞둔 4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와 올림픽 개최 도시 리우에서 신나는 케이팝 플래시몹이 펼쳐져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상파울루 플래시몹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파울리스타 대로, 리우 플래시몹은 지난해 개원해 시의 명물로 자리 잡은 '미래 박물관' 광장에서 열렸다.

브라질의 한류 사랑 모임 '비바 코레이아(Viva Coreia)' 회원과 브라질 한국문화원(원장 이세영) 수강생, 일반 시민 등 100~200명이 각각 참가해 두 도시에서 펼쳐진 플래시몹은 리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한국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비바 코레이아'는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지난해 한류 커뮤니티 회원과 한국문화원 명예기자단, 상파울루 대학(USP) 한국어학과 대학생 등이 참여해 발족했다.

행사는 한국문화원이 주관했으나 기획과 음악 선정, 안무 동영상 제작, 커버댄스 연습 등은 모두 브라질 한류 팬들이 스스로 준비했다. 브라질 한류 팬들에게 인기가 있으면서 올림픽 응원에도 적합한 여성 아이돌 트와이스의 '우아하게', 남성 아이돌 세븐틴의 '만세', 단체 안무로 유명한 프로듀스 101의 '픽미(Pick me)' 등 3곡이 플래시몹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한류 팬들은 전문 케이팝 안무가를 섭외해 일반 시민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무 동영상을 미리 제작하는가 하면, 이를 페이스북의 한류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에 공개해 홍보에도 공을 들였다.

특히 상파울루 플래시몹에서는 비바 코레이아의 응원 리더인 남녀 15명으로 구성된 '팬타스틱 베이비스(Fantastic Babies)'가 나와 독창적인 올림픽 응원 댄스와 응원 메시지를 선보여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부대행사에서는 플래시몹에 참여한 케이팝 커버댄스 팀의 앙코르 공연과 한국·브라질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개별 퍼포먼스가 열렸고, 관객의 투표로 우수 퍼포먼스 팀을 선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원장은 "한국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한류 팬과 함께 리우 올림픽 D-100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게 됐다"면서 "올림픽이라는 지구촌 스포츠 축제를 통해 한국-브라질 양국의 스포츠·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상파울루 플래시몹은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파울리스타 대로, 리우 플래시몹은 지난해 개원해 시의 명물로 자리 잡은 '미래 박물관' 광장에서 열렸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D-100인 4월 27일(현지시간) 상파울루와 리우 시에서 케이팝(K-Pop) 플래시몹이 선보였다.

재외동포가 한국인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행정처가 소송 서류 대신 송달

사 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해 분쟁이 생길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분쟁을 조정·해결해 주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동창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법률상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

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 등의 경우 그 채무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

지를 관할하는 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등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장에는 주소·성명 외에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기재한다.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해 얻어내려는 결론을 특정해 기재한다. 청구 원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해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준다. 외국 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 서류의 송달이 문제가 된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부속 협약인 ‘헤이그 송달 협약’은 한국을 비롯한 협약 가입한 국가 간에 소송 서류를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수신해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에 있는 증거의 조사 및 채택에 관해서는 ‘민사 및 상사의 해외 증거 조사에 관한 협약(헤이그 증거 조사 협약)’에 따라 국제 증거 조사 공조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재판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 ‘캠퍼스 열린 법정’ (위), 재판정에 입장하는 재판관들(아래).

재판장이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 기일을 정해 원·피고를 소환하면 변론 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먼저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인정(자백)하거나 부인하는 식의 답변을 한다.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해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해 소송이 진행된다.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해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Q&A

▶ 해외에 있는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돈이 입금되지 않았을 때 국내에서 소송이 가능한가?

선진국 대부분이 헤이그 송달 협약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거주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가능하다. 헤이그 증거 조사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 중인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이 조사를 의뢰하면 외국 법원은 자국법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국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박근혜 대통령 이란 첫 공식 방문 교류 · 협력의 큰길 개척



박근혜 대통령은 5월 3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이란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및 동포 간담회 참석에 이어 이란 국립박물관 방문을 끝으로 이란에서 펼쳐진 세일즈·북핵 압박 외교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대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1일 이란 테헤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 첫날인 2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1962년 수교한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비(非)이슬람 국가 여성 정상의 이란 방문도 처음으로 박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내리면서 히잡(이슬람 전통 두건)의 일종인 '루사리'를 착용했다.

박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임석 하에 체결된 양해각서(MOU)가 19건에 달하는 등 방문 기간 양측 간 이뤄진 가계약과 MOU는 66건에 달했다.

우리나라와 이란 측은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42조원(371억 달러) 규모의 일괄 수주(EPC) 가계약이나 MOU를 체결해 향

후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에 MOU가 체결되지 않았으나 1단계 사업 MOU로 체결 가능성을 높인 2단계 사업을 포함할 경우 52조원(456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다. 철도·공항·수자원 관리·석유·가스·병원 건설·발전소 건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가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주요 인프라 사업은 철도 노반 건설 및 차량 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 달러), 테헤란과 카스피해(海)를 연결하는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최대 15억 달러) 등이다.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1·2단계 합산 100억 달러), 이란-오만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15억 달러), 콘크리트 아치댐 및 1천MW 수력발전 건설을 담은 바티아리 수력발전(19억 달러) 등도 이번 MOU 대상에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란 측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런 내용을 양국이 처음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았다.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며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성과와 함께 북핵 압박 외교는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북한과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해 온 이란이 북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고립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Supreme Leader)와 면담을 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 발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최고위층 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했다. **▶**

-
- 1. 박근혜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5월 2일 오전(현지시간) 테헤란 사드 아바드 종합리궁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사진 환담을 하고 있다.
 - 2.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월 2일 저녁(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있다.
 - 3. 박근혜 대통령이 5월 3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바른 말 고운 말

예부터 /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예부터’와 ‘예로부터’가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예로부터’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아마도 ‘~로’와 ‘~부터’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로부터’라는 조사가 잘못된 형태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으)로부터’, ‘~에서부터’, ‘~(으)로부터’ 등과 같이 조사와 조사가 겹쳐서 된 부사격 조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선, ‘예’라는 말은 ‘옛적’ 또는 ‘오래 전’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예’ 뒤에는 조사나 접미사가 붙어서 사용되고, ‘예로부터’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부터’와 ‘예로부터’는 모두 사용 가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들을 수 있는 ‘옛부터’라는 표현은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옛’이라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관형사이기 때문에 ‘옛날, 옛정, 옛 모습’과 같이 뒤에 반드시 명사를 써야 합니다.

부라부라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해 놓아야 할 때 무척 급하게 서둘러서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부라부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불이야 불이야’라는 말이 줄어서 된 것입니다. 사실 ‘불이야 불이야’라는 말은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급하게 움직일 때 쓰는 말로 원래 의성이었던 것이 어떤 행동의 모습을 표현하는 의태어로 바뀐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라부라’란 표현처럼 ‘불’과 관계있는 표현으로 급하고, 빠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뜻을 가진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리나케’는 원래 ‘불이 나게’란 말에서 온 것인데, 옛날에 불을 만드는 방법으로 자주 쓰인 것 중에 옴폭 패인 돌에 나뭇가지를 세게 돌려서 불꽃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이 날 정도로 급하고 빠르게 몸을 놀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 오른쪽 방향 열쇠

- 차가운 물
- 하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두 갈래로 벌어진 부분
- 현생 인류 이전의 고대 인류
- 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하게 둘러싸은 산성이라는 뜻으로, 방비나 단결 따위가 견고한 사물이나 상태를 이르는 말
- 털뿌리
- 대중교통에서 노인을 공경하는 뜻으로 노인들만 앉도록 마련한 좌석

- 말과의 포유류. 암말과 수나귀 사이에서 난 잡종으로 크기는 말보다 약간 작으며, 머리 모양과 귀·꼬리·울음소리는 나귀를 닮았다.
-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를 막는 물건
- 어떤 내용을 소개해 알려 주는 글
- 습관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버릇
- 대기 속에서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 공중이나 땅 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 아래쪽 방향 열쇠

- 버려두어 남아 빠진 집
-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항렬이 같은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 형제를 이르는 말. 흔히 손아래인 여자를 이른다.
- 아내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
- 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기회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콘크리트 속에 묻어서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쓰는 막대 모양의 철재
- 기독교의 경전 신약과 구약으로 돼 있다.
- 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 모양이 자배기 같고 바닥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다.
- 겉으로 보이는 모양의 상태

- 노린 냄새
- 조선 선조 때의 의기(義妓). 진주의 관기(官妓)로,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이 함락되자 축석루의 술자리에 서 당시 왜장(倭將)을 꺼안고 남강에 떨어져 죽었다.
- 늙어 시력이 나빠진, 또는 그런 눈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속하는 섬.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며, 네덜란드의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도착한 곳으로 유명하다.
-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문짝 주변을 돌아가며 바른 종이
-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 자기의 지위, 명예, 체면 따위를 손상함
-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이 지은 다락집
- 눈동자가 파란 눈, 흔히 서양 사람을 이르는 말

▶ 5월호 정답

보	릿	고	개	전	화	기
건		살	위			도
소	작	구	명	대	화	랑
	명	인	중	등	산	
		절	경	부	고	
	호	미	신	선	장	
국	수	수	라	상	미	소
거		세	록			독
리		아	미	수	영	약

봄의 기적

김선정 호주 | 2015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1990년대 중반의 나의 모교는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가지런하고 반질반질한 느낌을 주었다.

교정의 키 작은 꽃나무들은 가지런히 배열된 솜사탕 처럼 눈부신 봄 햇살에 화사함을 더해주고, 사박사박 밟을 수 있도록 길게 깔아놓은 은행잎들은 소녀감성 가득하신 교장선생님의 바람에 맞춰 가을을 맞은 여고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나의 계절은 고이 끝자락 즈음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스산한 초겨울에서 머물러 있었다. 해가 두 번 바뀌어 그 친구와 마주치기 전까지는...

화목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라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천편일률적인 자기소개서와는 정반대로 나는 이혼 전까지 끊이지 않던 부모님의 싸움 소리를 울면서 숨죽여 들어야 했다.

부모님을 대신해 시장바닥에서 억척스런 아줌마들과 비닐봉지를 들고서 실랑이를 해야 했으며, 거무스름하고 둔해 보이는 자전거에 감자 한두 상자를 싣고 배달을 다닐 만큼 집안형편이 좋지 못했다.

어릴 적 학원구경은 어려웠어도 공부는 그럭저럭하면서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오신 부모님의 바람처럼 나중에 커서 대학은 꼭 가야지 하는 세상물정 모르는 생각만 하면서 컸다.

날이 갈수록 부모님의 언성은 더 잦아지고 급기야 가까이 살고 있던 친척들까지 들락날락하면서 결혼생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쯤, 딸 둘의 장녀였던 나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부부간의 이야기들과 아직도 잊지 않는 싸움의 몸짓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이혼에

동의하고 말았다. 아니 동의하는 편이 더 낫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혼 후 엄마는 낮에는 시장 노점에서 채소를 팔고, 저녁에는 치킨 집에서 닭을 튀기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고전해야만 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내가 죽도록 싫은 전남편과 너무 닮아서였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와 나는 싸웠다. 지금은 이유도 기억나지 않는 그 싸움에 아니 엄마의 한풀이에 나도 점점 지쳐갔다. 새벽까지 약을 쓰는 엄마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고, 울다가 잠들어 깨어보면 이미 등교시간은 지나 있었다.

아파죽어도 교실에 와서 죽으라고 할 정도로 엄했던 학교를 나는 지각도 결석도 밥 먹듯 했다. 늦게라도 등교할라치면 어김없이 마주치던 교장선생님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통통 부은 나의 눈을 보시던 담임선생님은 애써 모른 척 해주셨다.

교실 안에서 나는 한결같았다. 수업이 시작되면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을 청하고, 종례시간이 돼서야 몸을 일으키고 가방을 집어 들었다. 그나마 담임선생님의 독일에 수업시간에는 눈이라도 뜨고 앉아서 애써 모른 척해 주시던 그 마음에 대한 성의라도 보이려 했다.

그저 학교에라도 가는 것이, 싫어도 집구석에 들어가는 것이, 도장에 나가 몸이라도 구르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없던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고3이 되어 취업반이었던 나는 매주 월요일에만 본교에 갔다. 쉬는 시간 학교 밖 불그레한 봄꽃들과는 상반되는 피곤한 얼굴로 밀린 숙제를 하느라 정신없는 친

구들의 얼굴을 교실 밖에서 슬쩍 보고 되돌아오기를 몇 번하던 나는 그 아이의 소식을 들었다.

짧은 커트머리에 안경을 썼던가 벗었던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튀지 않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상위권이었는데도 가물가물한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아이가 혈액암이라며 살 날이 3~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도 부모님도 말리는데 친구들 보고 싶고 끝까지 공부하고 싶다고 학교에 오고 있다고 했다. 얼마나 힘든지 한걸음 땀 때마다 큰 숨을 몰아가며 쉬어야 하는데도 통통 부은 다리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걸어서 말이다.

그 날 2교시가 끝나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교실 문을 나왔다가 멈춰 섰다. 그 아이가 힘겹게 계단을 오르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일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학교 종소리도 내 심장도 멎는 듯 했다. 복도에서 울리는 다른 친구들의 발자국 소리는 무음처리가 되고 그 아이와 나만이 그 공간에 있는 듯 다른 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그 아이는 한 손으로 계단 난간을 부여잡고 고개를 들고서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 보았다. 나는 발가벗긴 사람처럼 부끄럽고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입만 우물쭈물 거렸다.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 친구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죽을병에 걸렸을까 하고 신을 원망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런 나라도 같은 반 친구였다고 기억해 두었다 하늘로 가려고 두눈 속에 그리도 애뜻하게 담았던 걸까...

가늠하기 힘든 시간이 흐르고 나는 뭐라도 해야 했기에 “안녕”이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자 그 아이는 날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 순간 뽀뽀 얼어있는 몸을 뜨거운 목욕탕 물속에 담그듯 따끔따끔 온 몸에 온기가 흐르고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찌릿하면서 현기증을 느꼈다.

그리고 내게도 2년 만에 봄이 찾아왔음을 느꼈다. 그

아이의 보일 듯 말듯 한 미소가 나에게 가져다 준 계절이었다.

얼마나 대단한지... 어린 나이에 끝까지 본인의 인생을 충실히 살다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서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깨닫고야 말았다.

그까짓 부모님의 이혼이 뭐라고, 돈이 없어 학비 좀 늦게 내면 어떻고, 당장 나 봐주는 이 없는 게 뭐가 어대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지...

이렇게 건강한데, 저 아이의 처지에 비하면 난 백배 천 배 나은데,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는데 라고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진짜 나만의 봄을 맞이했다.

수년간 한글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과 공부해 오다 올해는 9학년 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한국의 청소년과는 또 다른 사춘기를 겪어 내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 지 고민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나의 십대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정확히 이십 년이 지난 지금 잊고 살았던, 이룸도 생각나지 않는 그 아이가 오랜만에 내 가슴에 두 눈에 봄비를 뿌렸다. 수업시간에 그 아이와의 일을 얘기해 주면서 몇 번이고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숨을 고르면서 참아냈다. 그러면서 나의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날아올 수 있는 비상의 순간과 함께 짜릿한 전율을 맛볼 수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스무 해도 못살고 가버린 그 아이의 짧은 인생이 나를 살 수 있게, 지금의 나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기억이었음을 혹여 불효자식으로 가슴에 묻고 계실 그 아이의 부모님께 이렇게나마 글로 전하고 싶다. **장**

재일동포 110년 사진전… 日대사 “발전적 한일관계로”



5월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재일동포 110년과 민단 70년의 발걸음'이란 주제의 사진전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왼쪽 둘째부터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벵쇼 고로 주한일본대사,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김수한 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 공로명 전 외교부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오른쪽 끝) 등

“일본사회와 상생하면서 재일동포의 권익 향상과 한일관계 발전에 힘쓴 민단의 역사와 재일동포의 삶을 돌아보는 사진전 개막을 축하합니다.”

벵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는 5월 16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오공태 단장, 민단)과 재외동포재단(조규형 이사장)이 서울시청 로비에서 '재일동포 110년과 민단 70년의 발걸음'이란 주제로 개막한 사진전 축하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의 인적 교류는 600배, 교역량은 110배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국 관계는 지난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늘어나 동북아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양국 관계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민단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의 강제징용 역사, 차별에 맞서 인권 투쟁을 벌여온 기록, 재일학도의용군의 6·25 참전, 1970

년대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투자와 88년 서울올림픽 성금 등 모국 기여 활동, 일본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온 애환의 흔적 등을 77점의 사진에 담았다.

개막식에는 새누리당 의원인 서청원 한일의원연맹회장, 김수한 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 오공태 단장,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공태 단장은 인사말에서 “모국 발전과 함께해온 재일동포의 역사가 모국에서 잊혀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사진전을 통해 국내외 인식도 높이고 재일 차세대의 민족 혼도 일깨우고자 사진전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서청원 의원은 축하에서 “1970년대 근대화의 초석이 된 모국투자와 88 서울 올림픽 성금 등 재일동포가 모국에 도움을 준 것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며 “사진전은 이들의 노고도 격려하고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한 회장은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차별받았던 기록 등 쓰라린 과거를 잘 알아야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재외동포가 700만 명이 넘는데 고국에 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재외동포 박물관 건립이 시급한데 정치권에서 나서준다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한국 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모국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민단은 재일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대표적 한인 단체”라며 “모국이 힘들 때마다 힘을 보탠 역사와 발전적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사진전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전은 서울(5월27일까지)을 시작으로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도 등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10월 3일부터 4일간 국회에서의 전시를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재단 한국어 학계와 손잡고 한글학교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한국어 학계와 손잡고 세계 각국의 한글학교 지원에 나선다고 5월 10일 밝혔다.

동포재단은 이날 오전 국제한국어교육학회·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이중언어학회·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와 한글학교



재외동포재단은 5월 10일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한국어문화학회, 이종언어학회,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와 한글학교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포재단과 이들 학회는 각국 동포의 한글 교육·민족 문화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합치게 됐다.

이들 기관은 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한글학교 교장 및 교사 연수, 학회장 및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세계 각국의 한글학교에서 한민족 정체성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한민족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동포재단·학회·한글학교가 3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에 오세영 코라오 그룹 회장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동포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5차 세계한상대회’의 대회장으로 오세영(53) 라오스 코라오 그룹 회장이 선출됐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9월 제주도 서귀

포시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를 앞두고 오 회장이 대회장으로 뽑혔다고 5월 12일 밝혔다.

오 회장은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1년 가량이다.

오 회장은 “올해 한상대회는 세계 각지의 동포 경제인이 고국에 모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특히 이번 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만큼 최대한 많은 동포 경제인이 참가해 세계와 모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1997년 라오스에 진출해 코라오 그룹을 세우고 연 매출 18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일궈다. 주력 업종인 자동차를 포함해 물류·건설·금융·가구·미디어 등으로 사업을 넓혔다.

이번 한상대회는 9월 27~29일 서귀포시 중문단지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에서 열린다. 국내외 경제인 3천여 명이 참가해 한상 콘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기업 전시회 등을 펼친다.

동포재단, 한인회 활성화 위해 사무국장 연수

세계 각국 동포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의 사무국장이 고국에 모여 실무 역량을 높이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 호텔에서 ‘2016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를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재단은 2015년부터 한인회 역량강화를 위해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에는 대양주한인총연합회, 러시아·CIS한인총연합회 등 대륙별 한인총연합회의 사무국장장과 국가별 한인회 사무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결성된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차세대 정체성 함양 및 네트워크, 한글학교 운영 및 지원, 한국 문화 보급, 다른 소수민족과의 연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동포재단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재단 사업 소개, 재단 이사장 및 부서장과의 간담회, 외교부와의 라운드테이블, 지역별 현안 토론 및 발표, 한인회 사업 개발 토의 및 발표, 문화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동포재단의 동포단체지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연수에 참가한 사무국장들이 한인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반겨 올해도 연수를 시행한다”며 “동포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인회 사업에 대한 재단 지원 기준 등 사무국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사업 발표와 평가를 통해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 평창군 봉평면의 메밀전병

막국수와 함께 전국을 사로잡은 건강식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인 봉평면에서 맛볼 수 있는 메밀전병

메밀은 본래 값싸다. 감자와 함께 대표적인 구황작물로 예부터 서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었다. 메밀은 쌀이나 밀가루보다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칼슘, 인산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잘되고 변비에 좋다.

메밀이 많이 재배되는 강원 산촌에선 집에 손님이 오면 메밀로 국수를 누르고 전을 부쳤다. 특히 메밀전병은 메밀 음식 중 품격이 높은 축에 속했다. 고기와 채소가 들어가 풍성한 맛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궁핍한 시절에 메밀전병을 얻어먹었다면 대접을 잘 받은 셈이었다. 조금 과장하면, 메밀전병은 보잘것없는 일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귀한 음식이었다.

메밀전병의 다른 이름은 총떡이다. 모양이 긴 총대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메밀 반죽으로 얇게 전을 부쳐 그 위에 고기, 김치, 당면, 채소, 두부 등을 다져 올린 후 돌돌 말아 익혀 먹는다. 내용물인 소는 미리 양념해 놓는다.



메밀전

접시에 길게 드러누운 메밀전병을 가위로 송덩송덩 먹기 좋게 잘라 놓으면 노릇노릇 기름을 두른 무채색 전과 알록달록한 소가 어우러져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담백한 메밀전과 약간 자극적인 소는 맛에서도 상부상조의 조화를 이룬다. 전체적인 모습은 전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떡보다 부침개에 가깝다.

메밀전병은 메밀의 고장인 강원도의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 산촌에선 감자나 배추를 수확한 후 메밀을 심어 늦가을에 거둬들였다. 탈곡한 메밀을 물레방아로 빻은 후 곱게 채를 쳐 나온 가루로 국수, 묵, 냉면, 만두를 만들어 먹었다. 물론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메밀전병을 맛볼 수 있다. 해안 지역에선 오징어 등 해산물을 소로 이용한다. 메밀전병이 전국구 음식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국수가 있다. 메밀 음식을 대표하는 막국수가 북한강 이남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할 때 얼떨결에 묻어갔다. 지금도 메밀음식 전문 식당에서 보면 다른 음식과 함께 주문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메밀전병이 단독으로 독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강원 평창군 봉평면은 메밀전병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음식 자체의 맛도 뛰어날 뿐더러 주변 풍광이 온통 메밀밭이어서 느낌이 색다르다. 메밀 경작지가 전국에서 가장 넓다. 특히 가을에 찾아가면 메밀밭이 펼쳐진 산허리와 들녘이 '소금을 뿌린 듯' 새하얗다. 농익은 보름달 아래 메밀밭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봉평은 예부터 메밀밭이 많았다고 한다. 가산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실제 무대다. 지금도 소설이 발표된 1930년대와 비교하면 길이 넓어지고 새 건물이 들어섰을 뿐 큰 변화는 없다. 장돌뱅이들이 술 대작을 하거나 하룻밤 쉬어가던 장터 주막 자리엔 현재 4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한 여름 밤에 개울가로 먹을 감으러 나간 허 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 팔자에 없는 연분을 맺은 물레방앗간은 흥정천 옆 메밀밭 언저리에 재현돼 있다.

허 생원과 조선달이 휘장 아래 명석을 깔고 드림전(옷감 가게)을 펴던 봉평장은 지금도 계속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2일, 7일에 장이 선다. 물론 옛날보다 규모는 작아졌다. 무명과 주단 바리, 방물 등을 벌여놓던 장돌뱅이들도 모두 사라졌다. 그 대신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상인들이 자릴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 산촌의 투박한 맛을 장전한 메밀전병 포수들이 너넉한 인심으로 관광객을 겨냥한다. **[장]**



1. 매년 열리는 효석문화제 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이 메밀전병을 만들고 있다.
2. 메밀묵

Tip

▶ 효석 문화마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 문화마을에서는 하얗게 핀 메밀 꽃밭을 배경으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인 가산 이효석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효석문화제가 매년 9월에 펼쳐진다. 축제가 열리는 봉평은 드넓은 메밀밭에 하얀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 장관을 이룬다. 소설 제목 그대로 메밀꽃 필 무렵이 되면 그 아름답고 청초한 정취에 흠뻑 빠져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 봉평면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흥정계곡 → 무이예술관 → 이효석 생가 → 봉평 전통시장 → 팔석정
- **관광 안내**
봉평면 관광 문의 (033-330-2762)
평창군 관광 안내센터 (033-330-2771)
- **대중교통**(서울 - 봉평)
버스 (2시간 40분 소요),
승용차 (2시간 10분 소요)
- **식당 정보**
진미식당 (033-336-5599),
풀내음 (033-335-0034)



해외 한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사진 공모전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한인사회의 모습을 국내에 소개하고자 '제4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연다. 동포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상작을 전시해 국내에 동포사회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다.

각국 동포의 생활상, 이민 1세대가 남긴 발자취, 한인과 현지인이 어우러진 풍경 등을 필름 또는 디지털 사진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독일로 간호사를 파견한 지 50년을 맞아 이들의 역사를 담은 사진도 공모한다.

재외동포(시민권자·영주권자·장기 체류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재외동포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진에 한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국내



에서 전시된다.

응모는 오는 7월 29일까지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할 수 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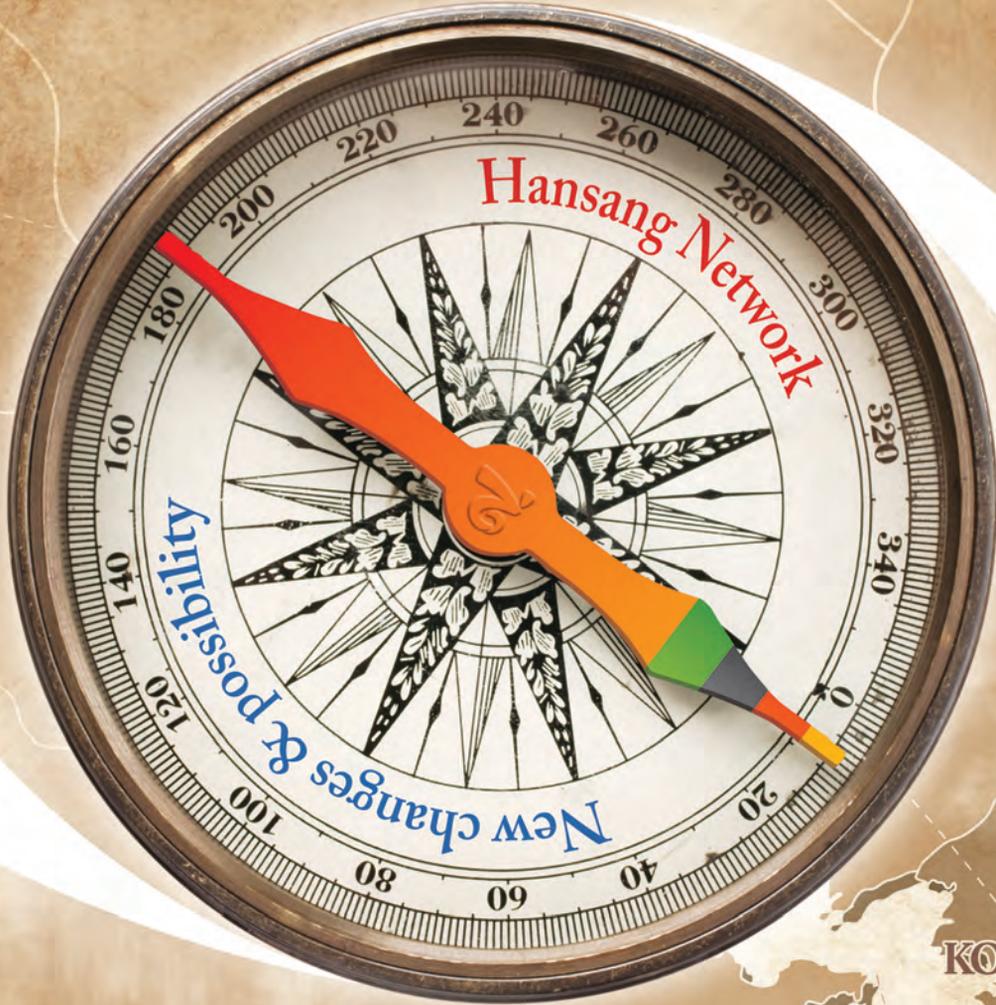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새로운 변화와 도약, **한상 네트워크**
 New changes & Possibility, **Hansang Network**



THE 15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제15차**

세계한상대회

2016. 9. **27**화 ~ **29**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EUROPE
147,000

CIS
480,000

CANADA
224,000

USA
2,250,000

CHINA
2,590,000

JAPAN
856,000

MIDDLE EAST
26,000

AFRICA
12,000

SOUTHEAST ASIA
325,000

OCEANIA
185,000

CENTRAL AND
SOUTH AMERICA
105,000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